

석학들 눈에 트럼프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지식인 거의 대다수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창설·유지돼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붕괴 내지 혼돈에 빠지게 하려 드는 트럼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다자주의보다 쌍무주의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기치 아래 일방주의적 트럼프의 정책을 바람직스럽지 않게 본다.”

그런데 최근 미 지식인들도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듯하다.

“중국 포비아(Phobia: 반중 감정)가 지난 1~2년 동안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지도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은 좀 더 근본적인 미·중간 패권 경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앞으로 적어도 10~20년간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중이 전쟁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 군사력 면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펼칠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국지적 충돌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 국제 질서의 혼돈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사공 이사장은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압박해서 성공한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의 굴복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가 미국쪽 인사들을 만나면 현재 중국은 과거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며 “중국인과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는 공개·비공개 양면의 유연한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G2가 갈등할 때 한국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